



제목	The New Sultan: Erdogan and the Crisis of Modern Turke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7. 6. 27.
저자	Soner Cagaptay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224
ISBN 또는 ISSN	978-1784538262

내용 요약

『새로운 술탄: 에르도안과 현대 터키의 위기』는 이슬람 세계에서 드물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터키가 에르도안의 지배로 인해 민주주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책이다. 에르도안은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고, 이후 민주주의를 버렸다. 2016년 6월 이후 그의 권력은 증대하였다. 이제 아타튀르크의 지지자이든 반아타튀르크 수정주의자이든 에르도안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터키 지도자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저자 카가프타이는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으로서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 회복과 같은 수단으로 터키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에르도안에게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저자가 에르도안의 권력 장악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니 터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에르도안의 권력 장악과 권력 남용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저자는 체포된 터키 국민들, 학교, 언론, 민간과 군대 업무에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터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지 않았다.

책은 총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세속적인 터키에서 빈민과 신앙인의 증가’, 2장은 ‘아타튀르크 이후의 터키’, 3장은 ‘터키에서 정치적 이슬람의 기반’, 4장은 ‘새로운 터키에서의 장군들의 형태’, 5장은 ‘이스탄불 시장으로서 에르도안의 부상’을 다루고 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에르도안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0장은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의 미래: 평화인가 전쟁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11장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본 에르도안의 외교 정책을, 12장은 터키 위기의 종결을 서술하고 있다.